

2017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참된 교회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쏟아부어진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순환인 교통은
교회생활의 실재이며,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흥된 생활과
목양하는 수고를 가져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며,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진정한 교회생활

메시지 1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

성경: 고전 1:2, 10-13, 3:3-4, 엡 4:3-6, 요일 2:27, 롬 14:1, 시 119:140

- I. 우리는 반드시 각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유일한 터를 보고 그 터 위에서 있어야 한다. 초기에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이었다 — 행 8:1, 13:1, 계 1:11.
- A.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록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 고전 1:2.
1.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내용을 가리킨다.
 2.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 준다. 그러한 지방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각각 이 지방적인 터 위에 건축되며, 따라서 자연히 지방이 교회의 터가 된다.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록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다.
 4. ‘각처에서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었고 또 읽을 것임을 가리킨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이 책의 수신인이다.
 5.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뭉치시자, 어느 지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교통(누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뭉치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 — 고전 1:9.
- B.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인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분열들을 유죄 판결했다 — 고전 1:10-13.
- C.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나누어질 수 없으시고 나누어지지도 않으신다 — 고전 1:13.
- D. 분열은 육체에 속한 것, 즉 사람을 따른 것이다 — 고전 3:3-4.
- E.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분열적이고 혼돈스러운 하락 아래서 우리의 실행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1. 우리는 천주교의 이단과 개신교의 교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류의 자유 그룹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2.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당파적이지 않고(딤후 3:10)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며(롬 16:17)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일 5:21)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라면, 비록 그들이 위에 언급된 분열들 중 어떤 것에 여전히 연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각각의 믿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
 3.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이며, 빌라델비아의 원칙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 계 3:7.
 4.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조도 없다.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번역되고, 성경 자체에 의해, 성경 자체에 따라 해석된 유일한 성경만 있다.

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보고 지켜야 한다 — 엡 4:3-6.

- A.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는 바로 그 영의 하나이다. 믿는 이들은 이 하나를 깨지 않아야 하고 화평의 때는 때로 이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 엡 4:3.
- B. 온 우주 안에는 삼일 하나님을 내용으로 갖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만이 있다 — 엡 4:4-6.
 - 1. 한 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내용의 본질이다.
 - 2. 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내용의 요소이다.
 - 3.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삼일이신 분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내용의 근원이다.
- C.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섞임을 보고 실행해야 한다.
 - 1. 하나님은 몸을 함께 섞으셨다(고전 12:24).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개개인의 섞임이고, 어느 권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섞임이며, 모든 동역자들의 섞임이고, 모든 장로들의 섞임이다.
 - 2. 이러한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그리스도 자신의 섞임이다.
 - 3. 이러한 섞임은 하나님의 큰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엡 3:8-10, 1:9-10)인 새 예루살렘(계 21:2)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III.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에 의해 균형 잡힘으로써 교회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 A. 우리는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체험으로부터,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지지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 1. 우리는 주님이나 주인이 아니며, 추수의 주님이 아니다(눅 10:2, 요 4:35). 오직 주 예수님만이 추수의 주님이시자 주인이시며 몸의 머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 안에서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
 - 2.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 준다면, 그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말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이다.
 - 3.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 B.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몸에 의해 균형 잡혀야 한다.
 - 1. 인도하는 이들이 많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에 대해 참으로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통을 통하여 그들의 부담을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 2. 결국 성도들은 주님께에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누구도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적이지 않을 것이다.

IV.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영적인 현장(영적인 규칙들과 규정들)을 실행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인 현장은 십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몸,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 A. 성전에 있는 제단(겔 40:47)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안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전 부지 전체의 중심이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제단은 사실상 우주의 중심이다.
 - 1.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 죽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연관되어 있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었고(눅

12:49-50, 요 12:24), 사람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는 것이었다(롬 6:6, 히 2:14, 9:26-28, 갈 6:14, 엡 2:14-15).

2.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해방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해방이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많이 통과 할수록,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 안으로 더 많이 해방되신다 — 고후 4:12.
 3. 십자가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각 방향 구석구석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 B.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생활은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단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재화되신 것이다 — 요 10:10하, 고전 15:45하, 롬 8:6.
- C.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확대하고 높이고 존경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 영은 우리의 현장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영의 내적인 기름 바름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 롬 8:16, 요일 2:20, 27.
- D.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온 우주의 온전한 머리의 권위에 취임하셨다(엡 1:20-22, 행 2:36). 삼층천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으며, 그분은 또한 각 사람의 머리이다(고전 11:3상).
1.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다른 어떤 머리나 중간 머리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머리는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 골 2:19, 마 23:8-12.
 2.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딤후 3:15),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모욕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3. 많은 형제들이 성도들에게 주님을 접촉하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줌으로써 무심결에 자주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모욕한다.
- E.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조절되고 규제받고 제한받아야 한다. 한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분량 안에 머물러야 하고(엡 4:16), 또 다른 면에서는 몸 안에 있고 몸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 곧 우리의 사역의 분량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딤후 4:5).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몸 안에 있고, 몸을 통해 있으며,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F.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열된다. 그들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몸에 대해 말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14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몸의 생활을 할 수 없다.
1. 로마서 12장에 계시된 몸의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14장에 계시된 대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교회생활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이렇게 받아들여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언급된 변화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천연적이라면, 교리나 실행에서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할 것이다.
 3.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한, 비록 교리상으로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일한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 롬 14:1.
- G.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 시 119:140.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영 혹은 숨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다 — 딤후 3:16, 요 6:63.
 2. 그러므로 마치 인(隣)이 성냥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며 실질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